

휴대폰·인터넷 이용 불법 선거운동 기승

홍보·비방 글 무작위 유포... 잇단 수사 의뢰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 이름알리기 등 신종 불법사태도 많아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경찰청은 '4·9총선'과 관련, A후보 이름과 함께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OO발전·일자리 만들기, OOO가 만들겠습니다'로, 발신인은 'A후보 지지연대'였다.

광주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설 연휴 이후 유권자들을 상대로 'OO발전시키기, XXX가 해내겠다'는 내용

의 A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이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대량 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발송자를 찾기 위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9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동 송신 장치를 이용한 무작위 발송(제82조의5)과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제254조2항)을 금지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현재까지 4·9 총선과 관련, 6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전남 모 지역에 출마 예정인 특정후보를 비방한 9건의 글을 적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후보 비방 글이 게재된 블로그 홈페이지 운영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IP 추적 등을 통해 게재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예비후보들이 몰린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각종 위법·불법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선거사법 수사전담반 운영과 사이버 선거사법 신고·수사체제를 구축해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강한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훈기자 dok2000@kwangju.co.kr

선거가 뭐길래 선거법 위반사비 우려 지자체 행사일정 쉬쉬

'4·9 총선'을 앞두고 광주 시내 지자체가 선거법 위반 사비를 없애기 위해 통장회의 등 각종 집회나 행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 5개 구청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준공식 행사 등 각종 집회나 행사를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보고받은 뒤 주간 행사계획표를 작성하는 등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청에서 총선을 앞두고 구청 업무의 기본인 동향파와 업무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행사일정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보 제공 형평성 논란 등 관련한 선거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형 기자 golee@

대의원들에 금품 살포 혐의 수사 농협 선거 출마자 음독자살 기도

동광양 단위농협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선거 출마자가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19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치러진 동광양 단위농협 감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K(72)씨가 이날 오후 2시에 광양시 중동 B아파트 자택에서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양 119 구조대는 "출동 당시 K씨가 극약을 마시긴 했으나 말도 하고 의식도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가 최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는데, 다시 돌려 받아야겠다"며 금품 살포혐의를 주장했으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광주지법 성폭행범 잇단 중형 선고

귀가중인 어린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9일 밤 늦게 귀가하는 어린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손모(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를 했지만, 범행횟수가 많고 수법이 대담하며,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끼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 군 등은 지난해 11월 5일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에서 송모(15)양을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초·중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

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연쇄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데도 고통을 덜어줄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범행의 반복성·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볼 때 박씨는 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3년 8월 28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북구 임동 A(여·20)씨 집에 침입, A씨를 성폭행하는 등 4년여간 1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437) 김종두



최종은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구사시 자택 및 상업용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양 : 061) 337-0571

상습 빈집털이범 21번째만에 덮미

상남팔

○광주북부경찰은 19일 도심 주택가와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39·북구 우산동)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박모(여·34)씨의 집에 침입해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시내 전역에서 21회에 걸쳐 시가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유형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경찰은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검문검색에서 훔친 금품 등이 발견돼 김씨를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19일 열린 장성 삼서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촛불을 들고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촛불 의식... 타임캡슐 묻고... 졸업歌 대신 희망歌

■눈길 모은 이색 졸업식

졸업 시즌이다. '빛 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하는 졸업가를 전교생이 따라부르며 울음바다가 되었던 졸업식은 이제 한 물 간 추억 속의 풍경이 돼버렸다. 요즘 졸업식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장이 되고 있다.

19일 열린 장성 삼서초등학교 졸업식에서는 촛불의식이 진행됐다. 14명의 졸업생들은 교장 선생님이 준 촛불을 든 채 하트 모양으로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졸업생들은 각자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71명의 전교생과 학부모 앞

에서 발표했다. 분위기는 경건했다. 이들의 다짐을 적은 카드는 학교생활의 추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CD로 제작돼 학교 현관에 놓인 타임캡슐로 들어간다. 20년 후 개봉될 예정이다.

삼서초 조희영 교감은 "졸업식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아이들 가슴 속에 깊이 남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19일 치러진 광주 문흥초교의 졸업식은 밝고 활기차게 진행됐다. 졸업가를 대신해 희망을 담은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졸업생과 학부모 등 참가자들이 합창한 것이다. 같은 날 열린 광주 오정초교 졸업식에서는

106명의 졸업생 전원이 주인공이었다. 졸업생 한명 한명을 각각 호명해 단상으로 올라오게 한 뒤 대형 화면에 졸업생의 학교생활 사진과 동영상도 띄워 보였다. 지난 18일 열린 광주 비아초등학교 졸업식은 희망 모드로 진행됐다. 졸업생 168명의 20%가 가까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 학교 총동창회는 10여년째 졸업식 행사의 하나로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10만원을 주고 있다.

비아초 윤관석 교감은 "동문들이 졸업식 때마다 감동을 선사해 고맙다"며 "졸업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충분히 가슴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밤샘엔비노기과

www.ambino.co.kr

만화보충, 주시요법, 현대는본

상담 전화 (062) 233-5119

15기 한총련 의장 집유 4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9일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15기 한총련 의장 유선민(25)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

결혼자금 문제 고민

30대 소방관 목 매 자살

결혼자금 문제로 고민하던 30대 소방관이 목을 매 자살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모 소방서 소속 L(32) 소방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윤남동 J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119 구급대원 정모(3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L씨는 오는 6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 평소 결혼자금 때문에 괴로웠으며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이런 고민을 주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다양한 부동산 광고: 코오모세적업주, 부동산, 아파트,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가격 안내.